

데스크 시국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박사님의 세대가 부럽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시형 박사(세로토닌문화원장)를 인터뷰하며 들은 일화다. 고(故) 최인호(1935-2013) 작가가 이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유는 ‘명색이 작가인데 배가 고파되지 않고서 어떻게 삶의 바닥을, 진정한 속내를 담은 글을 쓸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국민 건강 멘토’ ‘국민 주치의’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이 박사는 ‘사회 정신 의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이자 뇌 과학자이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태어났으니 올해로 만 89세이다. 그럼에도 나이가 무색할 만큼 글쓰기와 대중 강연, NGO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는 엔도르핀의 시대”

이 박사는 2021년 펴낸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특별한서재)에서 지난 반세기 산업화 시대를 뇌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는 “공격적인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성공하는 날의 환희,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시대였다”면서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등 행복 긍정 물질은 고갈되고 대신 폭력적, 충동적

구순 뇌 과학자의 ‘행복론’

인 공격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이 득세하는 불균형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강조한다.

또한 같은 책에서 현재의 사회문제 원인 역시 ‘행복 긍정 물질’의 고갈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기쁨 사회를 꿈꾸는 대령 사견들, 보복 운전, 문자마 살인, 우발적 방화 사건 등은 모두가 세로토닌 부족으로 조절력이 발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박사는 이제 ‘엔도르핀의 시대’에서 ‘세로토닌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소한 개념인 ‘세로토닌’(Serotonin)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물질이다. 사람의 공격성과 성욕, 식욕, 통증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250만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구한 시간 동안 인간의 뇌는 커지고 진화를 거듭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흠을 만지거나 숲에서 쉴 때 편안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변연계 공명’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다.

“인간 뇌는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발달한 ‘대뇌 신피질’, 감정을 취급하는 ‘대뇌 변연계’, 운동을 담당하는 ‘뇌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 몸은 자연과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변연계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박사는 현재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엔도르핀’이 아닌 행복 긍정 물질 ‘세로토닌’ 활성화를 통해 한국사회를 바꾸고자는 NGO 운동이다. 뇌과학을 인정하면 이후 세로토

닌은 일상 생활 속에서 쉽사리 함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햇빛을 받으며 걷기, 복을 두드리는 행위, 스킨십, 명상과 같은 것이다. (세로토닌문화가 중학교에 모듬복을 기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복을 두드리는 행위 만으로도 ‘중2병’으로 대표되는 10대 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교육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편안해”

구순의 뇌 과학자는 행복을 느끼는 상황을 목표가 달성됐을 때 느끼는 ‘도파민성 행복’, 감사를 베풀 때 느끼는 ‘옥시토신성 행복’,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세로토닌성 행복’, 행복에 관여하는 모든 물질이 동원되는 ‘복합성 행복’ 등 네 가지로 나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무한 경쟁이라는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 또 자신이 속한 조직은 무조건 옳고, 상대 조직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진영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로 잠잠할 새가 없다. 행복 긍정 물질인 세로토닌 활성화를 통해 한국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구순 뇌 과학자의 ‘세로토닌’ 행복론에 마음이 닿는다. 그의 바람은 오로지 한 가지다.

“도파민의 옥시, 노르아드레날린의 공격성, 엔도르핀의 환희 등 격정적 심성을 자제할 수 있는 세로토닌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엔도르핀(도파민)이 넘쳐나는 격정적 시대를 뛰어넘어 세로토닌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세로토닌적인 삶은 ‘나’의 뇌에서 비롯된다. /song@kwangju.co.kr

은편칼럼

매뉴얼 ‘एं터리’ 잡기

답인지 아니면 매사 완벽을 추구하는 기질 때문인지는 모르나, 세세한 사항까지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재난 상황에서 화장실 이용 방법까지 갖추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일본의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손님 방향으로 보여주며 ‘한장 두장 석상’ 하는 식으로 소리 내어 세어 주는 모습에 감동하다가도 매뉴얼에 따른 행동임을 알게 되면 심드렁해지기도 한다. 더욱이 예상 범위를 넘는 문제 상황에서는 허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정부는 원전 반경 20~30km에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노출된 옷은 비닐봉지에 밀폐해 폐기하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했다. 그런데 시민들은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다는 일화도 한 예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처럼 ‘천재(天災)와 지이(地異)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니 사전 대비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은 굳이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기도 하다. 매뉴얼에만 의존하다 보면 변화무쌍한 현실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매뉴얼은 과거의 것이다. 선례(先例)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선의 방법이지만 상황이 변해 여태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돌다

운(Top-down) 방식 의사 결정에 구속되면 자율성에 기반한 협력적 의사 결정의 여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견월장지(見月忘指). 누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한다. 달과 손가락 모두 진실임은 분명하다. 다만 방편인 손가락에 머물지 말고, 곧바로 본질인 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매뉴얼에 담긴 프레임은 새로운 상황에 맞서는 지적 에너지와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다.

한마디로 현장 상황에 기반해 엔터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흔히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엔터리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대강의 운곽’이라는 뜻 풀이와 더불어 ‘일주일 만에 일이 겨우 엔터리가 잡혔다’와 같은 용례가 먼저 올라 있다. 조항범 교수는 ‘그런, 우리말은 없다’에서 엔터리는 본래 ‘충실한 내용’ ‘이지간한 상태(모습)’를 나타내는 데 잘 어울리는 긍정 표현이라고 했다. 주로 ‘없다’와 어울려 쓰이다 보니 부정적 의미 가치가 덧씌워졌다는 것이다.

‘사물의 핵심이나 근거’가 엔터리임을 기억하면, 엔터리 보충은 형편없는 보충이 아니라 ‘속이 짝 반 보충’이다. 그렇듯이 매뉴얼의 본질을 꿰뚫고 습관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전투기 조종사 교관인 주인공은 전투기(F-18) 매뉴얼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적들도 다 알아. 그들이 모르는 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너희 파일럿의 한계야.”

사회복지가 ‘착한 일’이 아닌 돌봄이 되려면

시민 삶의 보호와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돌봄을 행하는 것이다. 그 돌봄 안에 ‘착한 일’ ‘어려운 일’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의 돌봄 행위가 더럽고 힘들다는 인식은, 돌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더러운 꼴을 보이는 것, 나의 처신을 맡기는 것은 민폐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타인의 민폐를 감당하며 돌보는 사회복지사를 착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진짜 문제는 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드러난다. 남에게 더럽고 못 볼 꼴을 보인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느니 죽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돌봄을 필요로 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얽혀 사는 것이 사람의 필연이다. 나도 일상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돌보고 있다. 언젠가는 나의 몸을 누군가에게 돌봐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나도 누군가의 그런 순간을 돌보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돌봄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끼면 나의 돌봄과 타인의 돌봄을 외면하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오래다. 돌봄과 사회복지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의존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수가 기피하는 일에 뛰어들어 사회복지사들을 사회가 외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돌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국가를 대신해 시민의 삶과 행복을 돌보는 일을 더럽고,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 일로 쳐우해서야 되겠는가.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던지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합당한 처우와 지지와 응원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주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하도록 손 내밀어 줄 사회복지사들의 삶은 우리 국민이 보살펴야 한다.

광주시에 사회복지시설 2209개소에서 일하는 8347명의 종사자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347명이 광주시민 8만 1602명을 일상적으로 돌보고 있다. 또 광주 지역에 있는 약 7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전체 광주시민(약 143만 명)의 삶을 돌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당시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얼굴을 아는가? 그들의 존재를 아는가?

우리는 광주라는 공간에서 크고 작은 돌봄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돌봄 노동의 가치는 재평가될 것이다. 돌봄은 사회복지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돌봄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살필 때 가능하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돌봄이 필요한 이유다.

社說

‘남해안 관광벨트 협약’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부산시·경남도가 그제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세 개 지자체가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추진단을 꾸려 해양레저관광 제도 정비와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연관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다짐했고, 해양수산부도 지난 1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해안의 비교우위 자원인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당초 전남·부산·경남 등 세 개 시도, 40여 개 시군구에서

200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고다한 대상 사업 선정, 세부 사업 중복 및 추진 지연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차질을 빚었다.

전남도는 그동안 사업을 분개도에 올려 놓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이벤트와 협약 등으로 구호에만 머물고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안한 ‘남해안 종합 개발청’ 설립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행정안전부 등 여섯 개 정부 부처가 공동 참여해 남해안권 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영호남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남해안은 한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친환경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돈 잔치’ 은행권 대출 금리 인하로 고통 분담을

경기 침체와 잇단 금리 인상으로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난해 신규 대출과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신규 대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조 1085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416억 원(1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2 금융권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누적 신규 대출은 3조 2157억 원으로, 전년도 무려 6768억 원(26.7%)이나 늘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에 금리 3% 미만의 저금리 대출 비중은 2021년 60.9%에

서 지난해 11.9%로 대폭 줄었다.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채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융권은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 지난해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 ‘돈 잔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금리와 고통을 지내며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금·대출 마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금융권의 이런 행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금융권은 대출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 이자 부담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은행들은 대규모 공적자금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국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금융권이 상생을 위한 고통 분담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94년 5월 어느 날 편집국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1980년 5월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 출신인데 5·18묘역을 참배하고 싶다고 말했다. 취기가 약간 느껴졌지만 취재 팀은 일단 만나보기로 했다.

사실이라면 5·18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계엄군의 참회’이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높았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난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확인해 보니 특전사 군인이 맞았다. 특종 경쟁이 치열한 터라 다음날 5·18묘역 참배 때까지 진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사관팀 막내인 내 몫이었다.

여관방을 잡아 함께 밤을 지새웠다. 밤사이 소주잔은 더 들었고 그 남자의 가슴 속에 내재돼 있던 트라우마가 터져 나왔다. 무고한 시민을 사살했다는 사실에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술에 취하자 트라우마가 약간의 폭력성으로 표출됐지만 간신히 붙잡는 데 성공해 다음날 5·18묘역으로 안내할 수 있었다. 그 후 계엄군 출신 군인들의 5·18묘역 참

배가 간간히 이뤄졌다. 이들의 참회는 계엄군을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인식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특전사를 비롯한 계엄군의 공식적인 사과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런 점에서 특전사동지회가 며칠전 5·18묘역을 공식 참배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5월 단체(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43년만에 처음으로 화해를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분란만 키웠다. 5월 영령들 앞에서 특전사의 군가인 ‘검은 베레모’를 제창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은 베레모는 특전사 군인들이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진압한 후 승전가처럼 부르는 군가다. 시민들의 반발에 특전사동지회와 행사를 주선한 일부 5·18단체 간부진은 ‘도둑 참배’를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검은 베레모 파문은 5월 단체의 분열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에 눈 먼 일부 5월 단체와 특전사동지회 간부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한 간부는 “5·18을 사유화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필수 사회담담 편집국장 bungy@

기고



김지선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누군가가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면 대개 “착한 일 하시네요” 혹은 “어려운 일 하시네요”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모든 국가의 정책 목표이자 모든 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의 총합인 사회복지가 어쩌다 ‘착한 일’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대부분의 직업이 나름의 목적이 있는 착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가 착한 일이자 어려운 일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사회복지사의 일을 더럽고,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시민이 선출한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를 구현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시민 개인의 안녕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사회복지사에게 위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목적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